



북방4도 지키는 소련 해군: 고르비의 방일을 계기로 소련은 연·태지역의 파수꾼이 되길 원하지만...

# 蘇, 亞·太 지도자 노린다

고르비 訪日是 주도권 확보 '디딤돌'... 성과는 불투명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4일 동안 소련의 최고위 인사로서는 꼭 1백년만에 일본을 방문한다. 이곳 전문가들은 일·소간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양국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현재 상황으로 봐서 "고르바초프는 빈손으로



고르비(왼쪽)와 오자와 이치로 자민당 간사장(오른쪽) 회담.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일본을 방문하는 목적이 대아시아 외교의 종착역인 일·소관계의 정상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르바초프는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이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소련이 북방영토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본은 소련측이 갈망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 이같은 관측은 '고-오자와회담'에서 재확인됐다. 지난달말 자민당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리 에토로후 등 북방4도의 주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고르바초프는 "영토문제에 대한 협의를 약속"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소련 영토인 북방4도는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쿠릴제도의 일부분으로 1855년부터 양국간 국경분쟁의 초점이 돼왔다.

## '동북아시아 경제권구상' 제창할 듯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련에 '오키나와 반환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방4도의 주권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4개 섬의 주권이 일본에 있음을 인정해줄 것을 소련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소련이 북방4도의 주권을 일본에 인정해줄 경우에 한해서 대소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주권인정을 조건으로 일본이 마련하고 있는 경제협력안은 10년간 2백수십억달러를 제

공한다는 것이다. 정부개발원조(ODA) 방식의 엔차관, 긴급식량원조, 장기경제협력협정의 체결, 민간계획을 추진하는 관민공동협의기관 설치 등이 그 내용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동북아시아경제권구상'을 제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자원, 일본과 한국의 자금과 기술, 중국의 노동력 등을 활용하는 이 경제권구상을 제창함으로써 시베리아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해결해볼려는 것이다.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경제난, 민족분규 등 내정을 수습하기 위해 그의 장기인 화려한 외교를 또 한번 펼칠 것 같다. 그는 85년 7월의 블라디보스토크연설에서 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제안한 이후 88년 9월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89년 5월의 북경연설에서는 극동소련군의 감축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89년 5월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으며 작년 9월에는 한국과도 국교를 수립했다.

소련은 작년 9월 당시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93년에 아시아 외무장관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지역의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이것을 장차 아시아 전체 수뇌회담으로 확대시켜나갈 것도 함께 제안했다. 그러나 소련 외무부는 고르바초프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세바르드나제의 제안과는 별도로 일본 중국 남북한 소련이 참가하는 극동지역의 협의체기구구상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소련 외무부의 파노프 태평양·동남아시아 국장은 얼마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소의 군사력 감소 후의 공백상태를 매우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 지역의 안보기구창설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련 외무부는 이러한 안보기구창설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총괄국'을 신설했으며, 고르바초프의 일본 방문에 맞춰 전면가동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쿄·蔡明錫 통신원